

세월호 국조·총리 청문회... 후반기 국회 '힘로'

증인 채택·특검 등 뇌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번주 본격 가동... 11·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6·4 지방선거가 사실상 무승부로 마감된데다 미니 총선급 규모로 치러지는 7월 재보선을 대비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 간의 전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일단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서 일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국조특위는 지난 6일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여야 및 유가족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충돌하면 유가족들이 나서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특위가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 등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뇌관'은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사후 대책 마련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자 책임 추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야당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검'도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

연합 등 야권에서는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오는 19일을 기점으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에 실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의 처리 문제도 관건이다.

세월호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내용으로, 입법 취지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를 놓고서는 양측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해 새 각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6월 국회에서 폭발력 있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개각의 폭과 후보자들의 성향 등에 따라 여야 대결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 간의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오는 11일과 12일 실시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새정치연합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칼을 갈고 있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와, 법안 소위 복수 등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목포시·영광군의회 전과자 많아 '불명예'

목포시의원 19명중 13명

영광군의회 7명중 6명

영광군의회와 목포시의회가 '전과자 집합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영광군의회에 입성하게 된 7명(비례대표 제외) 중 6명이 전과 기록이 있고, 죄목도 다채롭다. 7선에 오른 한 의원은 폭행치사 등 전과 5범이며, 누적 체납액도 5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또 다른 의원은 사기 등 전과 2범이며, 특수절도 전과가 있는 당선자도 있었다.

목포시의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당선된 19명 가운데 13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0대 목포시의회는 시의원 10명 중 7명꼴로 전과자로 채워지게 돼 지방의회의 질 저하와 함께 지방정치의 수준이 심각하게 퇴행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 13명의 전과는 총 31건으로 1인당 평균 2.38건에 달한다. 주로 음주운전, 특수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의원도 있었다.

전과가 무려 4건인 당선자가 3명에 달했고 3건인 당선자도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선거에서 시의원 19명 가운데 정의당 1명과 무소속 1명 등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돼 일당 독주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강기정·김동철, 윤시장 당선 '일등 공신'

중앙당 지원 유세 이끌고

보좌관 선거 캠프에 파견

새정치민주연합 운영권 광주시장 후보의 당선 뒤에는 강기정·김동철·장병완·박해자·임내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5명의 '숨은 역할'이 컸다. 이 중 3선 의원인 강기정·김동철 의원은 직접 선거 캠프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진두 지휘하면서 사실상 '김 메이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 국회의원 5명이 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은 이미 지역 정치권에 알려진 사실이다. 당 지도부의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앞서 운 후보를 지지해 강한 비판을 받았고, 전략공천이 이뤄진 뒤 사실상 운 후보와 '공동운명체'가 됐다. 운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 향후 자신들의 정치행보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뒤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은 운 후보 당선을 위해 전력을 쏟았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중앙당이 전략공천을 발표

하기에 앞서 구청장, 지방의원 예비후보 수십명을 국회의원 사무실로 불러 운장현 후보와 간담회를 하도록 하는 등 '조직력'을 발휘했다.

또한 자신들의 보좌관들을 운 후보 선거 캠프에 파견해 근무하도록 했다. 당의 전략공천 뒤 강기정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선거캠프에 합류하려다 기존 시민캠프와 충돌을 빚으면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기로 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운 후보가 지속적으로 무소속 강은태 후보에게 밀리면서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이 가운데 강기정 의원은 사실상 선거 캠프를 장악하고 선거상황본부장을 맡아 각종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의원은 중앙당의 지원유세 등을 이끌어내며 운 후보의 지지도를 상승세로 바꾸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해자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장병완 정책위의장, 임내현 시장위원장도 지도부와 호흡을 함께하며 운 후보 지원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월호 국정감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들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국조특위 "피해가족 평생지원시스템 구축"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특위'는 8일 "일회성 지원과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가족들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선진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제

정해 재난대응과 사후지원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의원은 "기존의 규정이나 관행에 얽매인 긴급지원 방안을 뛰어넘는 획기적 가족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족들의 생계와 생활 안정, 특수한 상황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들은 피해 가족을 위해 "세월호 국조특위 현장 본부를 진도실내체육관에 설치해 현장 담당 의원을 배정, 실종자 가

족들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안산시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진도 현장 본부를 맡는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대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을 따로 마련, 실종자 수색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달 지금 기초연금액

사이트서 미리 알 수 있다

기초연금이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노인들은 자기가 받는 연금액이 얼마나 될지 온라인을 통해 대략적으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기초연금 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추가해 복지정보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는 아예 이 포털에서 기초연금 신청도 접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양만권 세풍산단 사업자 변경 개발 탄력

광양만권의 최대 현안 사업인 세풍산단 사업 개발 사업이 기존 사업자와 투입비 정산과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개발사업 시행자 대체 지정 사실을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8일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GFEZ)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주)광양개발에서 세풍산단개발(주)로 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체 지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20%), 미래

에셋증권(20%), 한국토지신탁(20%), KB부동산신탁(20%), GFEZ(20%) 등이 참여한 세풍산단개발(주)이 세풍산단 개발을 맡아 오는 7월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착공하는 면적 3.0㎢의 세풍산단은 오는 2019년까지 5219억원이 투입돼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형 소재산업 R&D 등을 집중 육성한다. /윤현석기자 chadol@

두암신협

5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3.1%**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본점: 263-0136 (말바우 사거리)

울곡지점: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첨단지점: 572-9511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미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임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미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